





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"고 평가했다.

임유경 기자(lyk@zdnet.co.kr)

▶ 지디넷코리아 '홈페이지'

▶ 네이버 채널 구독하기

© 메가뉴스 & ZDNET, A RED VENTURES COMPANY,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
---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92&aid=0002209989>

---